

# 李대통령 “힘들다...죽겠단 말 말라”

## 미·일 순방후 첫 각의...국무위원 기강잡기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적, 진취적 사고를 갖고 국정에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전날 밤 늦게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피곤해 하지 말고, 어려워도 ‘죽겠다’ 하지 말고, 이럴수록 이마에 기름이 번쩍번쩍 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꾸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습관이 된다. 그럴수록 자신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갔을 때 외교통상부에서 스케줄을 어찌나 많이 잡아 놔던지 열흘은 걸릴 것 같아 절반으로 줄였다. 솔직히 말해 두 시간밖에 못 잔 날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내가 남에게 피로해 보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조인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신은 말리시와 시차가 바뀌고 해도 (북미)협상할 때 피곤해 하면 안

된다. 피로한 기색없이 협상에 임해야 잘 된다”고 얘기해 줬다”면서 “이번에 미국에 가니 힐 차관보가 찾아와 ‘그때 충고대로 지금도 하고 있다. 유익한 얘기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힘들고 불안할 때 국무위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안심하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면서 “(경제가) 어려워도 출퇴근, 안 그래도 출퇴근 ‘출퇴근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정상대로 하면 위기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방일기간 미타라이 후

지로 일본 게이단련(經團聯) 회장과 나눈 얘기를 전하면서 재차 ‘정신무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게이단련 회장이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 하는 것을 보니까 한국을 위해 될 하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가슴깊이 느끼겠다.”

일본이 발전한 근본원인은 전쟁에서 져기 때문으로 패망 뒤 이대로 가면 영원히 죽는다. 살아 남겠다는 서바이벌 정신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평하더라”면서 “그러면서 ‘한국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 도와주면 잘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주인 힐러리 로드햄 상원의원(맨 왼쪽)이 21일 필라델피아 소재 펜실베이니아 대학 캠퍼스에서 유세 집회가 끝날 무렵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딸 체시와 합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성 김 방북 북핵 최종 신고안 조율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미국 실무진이 22일 평양을 방문, 북한과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협의한다.

김 과장과 원자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국 실무진은 이날 오전 판문점을 거쳐 육로로 평양을 방문. 이를 정도 머물며 북측과 플루토늄 관련 사항을 다룰 공식 신고서의 내용에 대해 최종 조율을 예정했다.

김 과장은 앞서 21일 오후 인천공

항에 도착, “내일 평양에 올라가 북한 원자력총국 및 외무성 인사들과 만나 핵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검증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구체적이며 알찬 협의가 되기를 기대하며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 일행은 24일 평양에서 나와 한국 등에 북측과의 협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초파리 무사귀환

이소연씨와 함께 우주여행  
600~700마리 살아 돌아와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29)씨와 함께 12일간 우주여행을 떠났던 초파리들 대다수가 살아서 돌아왔다.

조경상 건국대 교수는 22일 전화통화에서 “우주로 떠났던 초파리 1천마리 가운데 600~700마리 정도가 살아서 돌아왔다”며 “초파리들을 데리고 내일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파리는 사람과 유전자 75%가량 같은 ‘모델 동물’로서 우주에서 사람의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하기 위해 조 교수는 연구실에서 키운 초파리들을 지난 8일 소유스호에 태워 우주로 보냈다.

조 교수는 살아 돌아온 초파리

들을 국내로 데려 오기 위해 러시아에 머물고 있다.

조 교수는 “지금까지 우주에 간 초파리들이 죽어 돌아온 때가 많았고 우주 초파리를 연구한 이도 10명이 채 안 된다”며 “초파리들이 급변한 환경, 방사·작륙 때 오는 충격과 진동을 딛고 살아 돌아올지 많이 걱정했는데 대다수가 무사귀환해 이르면 3개월 뒤에는 연구결과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소연씨는 우주정거장에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반응하는 초파리가 우주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중력에 반응하는 인자가 무엇인지, 노화를 촉진하는 과정은 어떤지 보려는 실험을 지시대로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 김기삼씨 “DJ 노벨평화상 로비 의혹 전모 밝혀졌다”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폭로한 뒤 최근 미국 법원으로부터 망명을 허가받은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가 오는 2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둘러싼 로비의 의혹 전모를 밝혀졌다고 21일 말했다.

김 씨는 이날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로비

와 관련해 국민과 언론이 무척 궁금해 하는 데 오는 26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김 씨는 오는 26일부터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한인권주간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끝내기 한방 vs 카운터 펀치

(오바마)

(힐러리)

### 美대선 펜실베이니아 민주 경선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장기 접전을 거듭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22일 (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 다시 한 번 명운을 건 대결을 펼친다.

오바마는 AP통신과 CNN이 집계한 후보별 대의원 수에서 각각 1천 648.5명과 1천644명을 확보, 힐러리(1천59.5명과 1천498명)를 139~146명 앞서고 있지만,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힐러리에 뒤지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 두 후보간 접전양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힐러리는 그러나 전반적인 대의원 수에서 오바마에게 100명 이상 뒤진 데다 자금력과 슈퍼대의원 확보경쟁

에서도 열세여서 펜실베이니아 경선에서 큰 격차로 이기지 못할 경우 사퇴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와 힐러리 두 경쟁자는 경선을 하루 앞둔 21일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 스크랜턴 등 펜실베이니아 주요 도시를 돌며 마지막 표몰이에 나섰으며 상대 후보의 약점을 무차별 공격하는 대대적인 TV 광고전도 병행했다. 펜실베이니아에는 총 158명의 대의원이 걸려 있어 남은 10개의 경선 지역 중 가장 중요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공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가 6~10%의 근소한 우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니피역대학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가 51%의 지지로

44%에 그친 오바마를 7%포인트 앞섰으며, 라스무센 리포트 조사에서는 힐러리가 49%, 오바마 44%로 격차가 5%포인트에 불과했다.

뉴스맥스-조그비의 공동여론조사에서도 힐러리는 48%, 오바마 42%로 6%포인트 차이였으며, 서퍽대학 조사에서는 힐러리가 52%, 오바마 42%로 10% 포인트 격차였다.

힐러리는 당초 여론조사 지지율이 20%포인트 가량 앞선 상태에서 펜실베이니아 경선 선거전을 시작했으나 오바마의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해 지지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오바마는 이날 펜실베이니아 경선에서 승리를 예상하지 않는다면 다만 아주 근소한 승부가 될 것이며, 힐러리와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법원 집행부중신의 매각 공고

구분	내역	잔액	잔액	잔액	잔액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21	...	...	...	...	...
22	...	...	...	...	...
23	...	...	...	...	...
24	...	...	...	...	...
25	...	...	...	...	...
26	...	...	...	...	...
27	...	...	...	...	...
28	...	...	...	...	...
29	...	...	...	...	...
30	...	...	...	...	...
31	...	...	...	...	...
32	...	...	...	...	...
33	...	...	...	...	...
34	...	...	...	...	...
35	...	...	...	...	...
36	...	...	...	...	...
37	...	...	...	...	...
38	...	...	...	...	...
39	...	...	...	...	...
40	...	...	...	...	...
41	...	...	...	...	...
42	...	...	...	...	...
43	...	...	...	...	...
44	...	...	...	...	...
45	...	...	...	...	...
46	...	...	...	...	...
47	...	...	...	...	...
48	...	...	...	...	...
49	...	...	...	...	...
50	...	...	...	...	...

광주지방법원 · 서울지방법원 · 서울지방법원